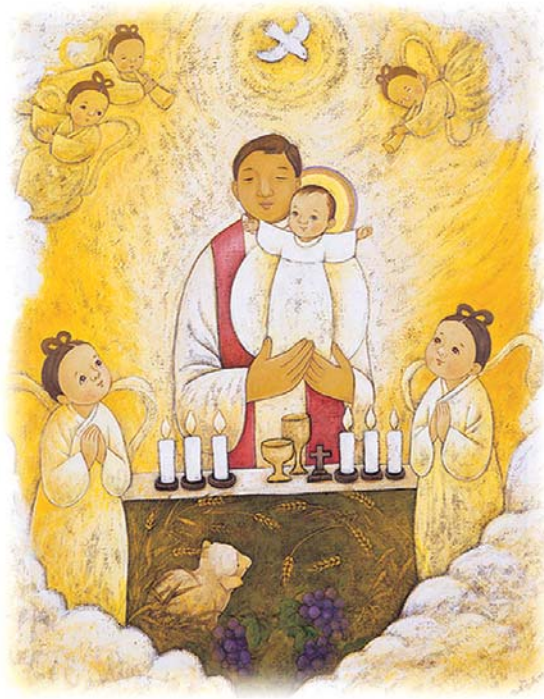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11월호



바리사이들에 대한 경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5번 '사랑이 없으면'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랬던 사과가...



〈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1장 37-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새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주위에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미국의 한 전함에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 함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젊은 사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병은 원래 하느님을 믿지 않고 다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장은 평소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읽도록 권해왔기에 자신의 부관을 시켜서 그 사병에게 성경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관이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장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병은 늘 성경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아해진 함장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성경은 바로 함장님입니다. 함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함장님을 통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 사병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관의 말을 들은 함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산다면 인도에는 힌두교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하기를, 언행에 모순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고로 그리스도인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고 정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15번 ‘사랑이 없으면’ 3-4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11월 위령 성월

“연옥을 무서운 곳인데 왜 ‘복되다’고 말합니까? 연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많은 교우들께서 연옥을 반(半) 지옥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얻어진 복된 곳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정화의 장소이며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버틸 수 없는 허약한 죄인들을 위한 기회의 자리이니깐요.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되기 위해서 단장하는 기간이며 장소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때문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야말로 하느님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천국은 하느님과의 열렬



위령성월



한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 입성 자격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일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 나아가 자연과 우주를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느님 나라

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연옥단련을 겪는 각오로써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사랑과 희생을 살아가는 일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서상우(요셉) : 토월본당 6구역 남성소공동체장 -

사과공동본당(사과동, 신월동, 창원상남동, 토월 : 한 지붕 네 가족)내 토월본당에는 6개 구역 21개 반으로 구성된 여성소공동체와 6개 구역의 남성소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 토월본당 남성 6구역은 토월 성원 아파트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각 구역별로 복음나누기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구성원은 연령대 (30~70대)뿐 아니라, 신앙 연륜도 갖 영세 받은 분에서 모태 신앙인 분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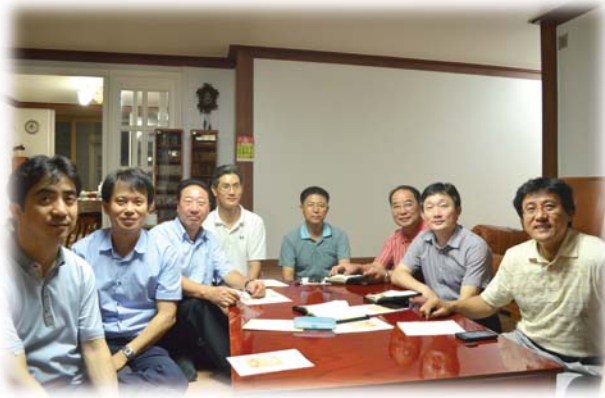
처음 공동체의 모임이 시작된 2000년도에는 7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인식부족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역 내 교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같은 교우끼리도 왕래가 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당 구역분과의 도움으로 교우 현황 파악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공동체로 인도하는 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흐른 뒤 초대 회장님과 총무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서서히 참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웃에 있는 쉬는 교우 회두와 예비신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동체가 차츰 성장하여 갔습니다. 이제는 100%의 참석은 되지 못하지만, 15명 내외가 항상 참여하여 복음 나누기와 한 달 동안 있었던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형제애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이 있기 전에는 다들 본당 일에 무관심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본당 일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이제는 사목회장을 2명이나 배출하였고 거의 모든 반원들이 레지오와 사목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70세 넘으신 큰 형님이 계시어 복음 나누기 할 때면 신앙과 삶에 좋은 말씀과 모범을 보여 주셔서 젊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생활 속의 아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을 진솔하게 나눔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배우며 격려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툰 모임이라 초대기도도 어려워였고 복음 나누기도 서로 눈치만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진심으로 복음 나누기에 참여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반원들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참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원들 중 멀리 이사 가신 분을 제외하고 창원 내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아직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없는 8월에는 야외 활동으로 등산이나 친목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매달 모으는 회비로 연말이면 빈첸시오나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본당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모범 구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확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하고 청하여라.”(마태 10:37-38)라는 복음 말씀으로 지역사회와 성당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소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토월본당 6구역 남성소공동체〉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